

요루미야 시키 미니 보이스

《두 사람의 싸움》

……하아…….

음…… 아아, 정말…….

모처럼의 휴일에 아침부터 싸우다니…… 최악이야.

아아…….

원래라면 지금쯤 집에서 같이 영화 보고~

점심이 되면 오므라이스 만드는 법 알려달라고 해서…… 같이 먹고……

그 후에는 잠깐 산책 데이트도 할 예정이었고…… 쇼핑도 하면서

그리고…… 같이… 같이……, 젠장……

으으…… 즐거운 휴일 데이트가 될 예정이었는데

선배는 머리 식히고 온다고 하고 나가버리고……

하아~.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이 녀석……

너 때문이야…….

선배가 요즘 너만 예뻐하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나서…….

아까도 그래서 싸워버리고……

으음…… 근데 이 인형…… 정말 내가 모델인가……?

나 이런 맹한 얼굴 아닌데……

(작은 소리로)

선배는 똑같다고 하긴 했지만…….

으음…….

이렇게 작은 것보다 내 쪽이 더 멋있고.

귀도 꼬리도 내가 훨씬 더 촉감 좋을 텐데…….

으, 아아…… 하지만 이녀석 모질도 꽤…… 기분 좋은가…….

응. 여기라든가…….

……이 근처도…… 뭐야, 여기 완전 부드러워~.

으음…… 푹신푹신해. 하아…….

..., 앗 아니지, 아냐..... 나도 귀는 부드럽거든!
귀 뒤쪽도 그렇고..... 탄력 있고 보들보들해.

.....꼬리털은 좀 단단하지만
그래도 두툼하고 푹신하잖아.
선배는 엄청 좋다고 했고.
지지 않았어. 지지 않았..... 겠지.....

그래..... 지지 않았는데.....
왜 선배는 너만 안아주는 걸까.....
.....뭐, 널 안고 있는 선배를
내가 안고 있긴 하지만.....
.....뭔가 복잡한 기분.....

으음.....어쨌든, 선배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인데,
나만 봐주지 않는게 싫어.....

하아.....
물론 내가 1등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질투가 나지?

선배를 좋아하게 되기 전까진
내가 이렇게 질투하는 놈인 줄 몰랐어.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늘 여유가 없어서.....질투만 하고.....
섹스도 늘 정신없이 들이대기만 하고.....

그런데 선배는 늘 웃으면서 용서해줘.....
(작은 소리로)
뭐, 별은 좀 받긴 하지만.....

오늘도 전부 내가 잘못한 건데.....
어른스럽게 다 받아줬어.....
난 애처럼 그냥 빼지기나 하고.....

윽, 안 돼…… 어렴풋이 짐작하긴 했지만, 빼진 이유가 너무 애같아…….
인형을 상대로 질투하다니…….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1000% 반성할 수밖에 없어…….

음……모델은 나니까, 이 녀석은 분신 같은 거고.
자세히 보니 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이라면 선배에게 귀여움을 받을 권리 있는 있을…… 지도.
물론 첫번째는 진짜 나지만(분하지만 좋다는 느낌으로).
음…… 역시 쓰다듬으면 기분 좋아 이 녀석…….
귀도 복슬복슬해서…… 뭔가 마음이 놓여……

……선배도 나를 쓰다듬을 때,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하아……, 선배… 보고 싶다…….

후우…….
…좋아.
지금 당장 데리러 가서 사과해야겠다.
밤까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으니까 선배랑 같이 있고 싶어.

……응?
아……!
선배다……!

…웃, 여보세요, 선배?
아까는 미안, 나…… 사과하고 싶어서……

어, 화 안 났어 ……?
……왜 그렇게 웃는……,
……'보고 있었다'니, 무슨 말이야?

응……
인형이라면 지금 들고 있어.

아아…… 응. 알아. 선배 친구한테 받은 거라고 했었지.
상품개발부 사람인가?

분명…… 선배 조언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통과했으니까
보답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의 샘플을 만들어준 거라고……

아니, 자료는 못 봤어.
이번에 출시됐다고 들긴 했는데…….

응……, 응.

……어?

카, 카메라?
이 인형한테?
……엑…… '원격 감시 기능 포함'…… 이라고?

우와, 진짜네. 눈에 카메라가 달려있어…….

……어, 그럼 혹시…… 계속 보고 있었어……?

잠깐, 언제부터……!?

우와…… 최악이다……
쪽팔려…… 나 뭔가 이상한 말 안 했나…….

응…… 그래.
날 걱정해준 거구나…….

선배가 사과할 필요 없어.
인형 상대로 질투하는 게 들켜서 창피했을 뿐이지……

……그, 그건 처음부터 들켰다고?
으…… 그렇구나…….

……후후……

음…… 나야말로 미안해.

선배, 좋아해……

……응, 후후. 나도 좋아?

……아아…… 저기, 빨리 만나고 싶어.

데리러 갈 테니까 장소 알려줘.

……응, 역앞 거기 말이지? 알았어.

금방 갈게, 기다려.

현팅 같은 거 당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아, 이대로 통화하면서 가면 되려나?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끊고 싶지 않을 걸, 빨리 선배 보고 싶어…….

응…… 응, 알았어…….

END